



뮤지엄헤드 Museumhead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 층
1F, 84-3, Gyedong-gil, Jongno-gu, Seoul
[보도자료] 배포: 2025 년 10 월 14 일

뮤지엄헤드, 기획 단체전 《미드나잇 미드나잇》 개최

전시 제목	미드나잇 미드나잇 (Midnight Midnight)
참여 작가	류인, 박영숙, 홍승일
전시 기간	2025 년 9 월 25 일 - 11 월 15 일
전시 부문	사진, 조각, 설치 등 11 점
전시 장소	뮤지엄헤드,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 층 및 야외
운영 일시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주최 및 주관	뮤지엄헤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주체 2025

뮤지엄헤드는 2025 년 9 월 25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기획 단체전 《미드나잇 미드나잇》을 개최한다. 전시는 류인 (1956-1999), 박영숙 (1941-2025), 홍승일 (b.1960)의 작업을 오늘에 겹쳐보며 성급하게 봉합된 역사 속에서 어떤 실천이 기억되고 누락되었는지, 잔존하는 당대적 과제와 질문은 무엇인지 되묻는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남는 것은 무엇일까. 전시는 소동을 증폭시키는 한철 모락을 넘어 온전히 오늘을 마주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미드나잇 미드나잇》은 시간을 겹쳐본다. 관계없다, 미약하다 여겨지는 시간들이, 이미 보았다고, 혹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장면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든다.

전시는 류인, 박영숙, 홍승일의 활동 시기가 겹치기도 하는 1980 년대, 그리고 한국 미술사의 현대성, 동시대성이 시급히 모색되던 역사적 분기점들을 돌아보며, 과거가

오늘에 기이한 평행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점을 눈 여겨 본다. 나아가 그때의 동력이 간단한 영웅담이나, 과도기적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틈새에서 거듭 복기됨을 확인한다. 《미드나잇 미드나잇》은 그렇게 중첩된 시간에 자리하며 새로움과 시급함의 언어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현재의 증상과 공백을 파악해본다.

[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2. 작가 소개 및 주요 작품 소개
3. 전시 포스터 (파일 별첨)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문의 T. 02-742-9146 / E. museumhead.seoul@gmail.com

추가 문의	대표 소셜 미디어
책임큐레이터 권혁규 010-6359-2331 hyukguekwon@gmail.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useumhead_/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useumheadd
큐레이터 허호정 010-9190-7533 hojeong7534@gmail.com	아카이브 www.museumhead.com

[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미드나잇 미드나잇

소란스러운 날들이 지난 후,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전시는 한바탕 소동을 증폭시키는 잡음과 한철 모락을 넘어, 온전히 오늘을 마주하는 장면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잠깐의 멈춤도 허락하지 않는 성급한 모색의 스타일을, 과잉된 스크린과 억지 경험을 거슬러 오늘을 더 견고하게, 또 집요하게 붙잡아 볼 순 없을까.

《미드나잇 미드나잇》은 시간을 겹쳐본다. 멀다, 관계없다, 미약하다 여겨지는 서로 다른 시간들을 지금-여기, 오늘에 포개어 본다. 어느 날의 젊음과 무모함, 미완의 시도들, 이미 보았다고 믿어지는, 또 결코 도달할 수 없으리라 여겨지는 장면들이 모여든다. 여기 모인 장면들은 억지 미래를 약속하거나, 과거의 유산을 앞세우는 대신 탈색된 시간과 장소 속에서도 여전히 생성되는 순간의 연쇄를 기대한다. 그렇게 전시는 지난 것과 오지 않은 것을 겹쳐 보이는 오늘의 비약적 접속을 그려본다. 그날의 번쩍임이 연대기적 흐름 속에서 영웅담이 되거나, 과도기의 미미한 실험 정도로 정리되지도 않고, 현재로 이어진다고, 시간들은 중첩되고 지속된다고 믿고 싶은지도 모른다. 협찬과 후원 로고로 가득한 밤이 동시대의 시간성을 압도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움트는 다른 시간과 장면이 목격되길 바라면서 말이다. 전시는 소란스런 그날, 눈에 띄지 않았던 움직임, 지나치며 놓쳤던 표정이나 단어들, 잠시의 침묵을 더듬으며 서로 다른 시간들을 엮어본다. 공허한 파티를 벗어난 한밤중의 고군분투를 오늘로 이어보는 직감을 의도한다.

《미드나잇 미드나잇》은 오늘을 붙잡는 중첩의 시간으로 1980 년대로부터 전개되는 몇몇 역사적 지점을 소환한다. 류인, 박영숙, 홍승일의 활동이 겹치는 이 시기는 말 그대로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의 격변기였다. 1980 년대는 신군부의 비상계엄으로 시작해, 민주화 운동과 경제 고도성장이 교차하고 있었다. 1986 년 아시안게임과 1988 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 교류가 확장되고 문화 환경도 급변했으며, 미술계 또한 제도적 팽창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그 외연을 넓혀갔다. 한편, 당시 많은 젊은 작가들은 이 같은 흐름에 동일한 논리로 무조건 가담하기보다, 소그룹 활동이나 개인적 관심사를 매개로 한 집약적 실천을 전개하며 차별적 위치를 탐색했다. 결과적으로 1980 년대 한국 미술은 제도적 · 현실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이전보다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나, 미술사 서술에서는 주로 1970 년대의 단색화 · 추상 일변도와 대비되는 리얼리즘 혹은 ‘민중미술’의 흐름으로 수렴·요약되곤 한다. 이어 1990 년대 폭발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다매체적이고 탈전통적인 미술의 경향은 신세대 · 포스트모던 미술의 전유물로 이해되었고, 그 결과 1980 년대에 (이미) 존재했던 설치, 레디메이드 오브제, 페미니즘 미술, 수행적 행위 예술 등 다양한 실천들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채 부차적인 수준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어떤 오늘은 이와 기묘한 평행을 이루는 듯하다. 한밤중의 비상계엄,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혼란들, 현대미술을 정치적 · 경제적 장치로 활용하고 과시하는 듯한 해외 교류 행사들, 자본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미술계의 구조와 가치 체계를 재편하는 글로벌 시장 플랫폼, 이러한 확장

속에서 포착되지 않은 채 배제되는 미술과 경험들, 다시 속제로 남는 연구와 비평, 그리고 전시의 과제들까지.

그동안 한국 현대 미술에서 ‘현대성’ 혹은 ‘동시대성’은 어떻게 규정되고 또 규명되어 왔는가? 편년체의 역사 서술 속에서 현대의 시급성, 동시대의 갈급함은 과거와의 단절, 분명한 혁신의 계기를 소환해왔고, 역사는 그렇게 메워지지 않는 틈을 남겨두었다. 1970 년대의 단색화 계열과 1980 년대 민중미술 사이, 1980 년대 후반의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미술’ 사이, 1990 년대 전후의 전지구적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과 그 이전의 한국 미술 사이 등. 특정한 조류가 불거질 때 그에 포섭되지 않는 복수의 시도들은 인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이행기, 과도기, 불가피한 분절의 파생 산물 정도로 이해되었다. 역사적 분기점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시공간은 그렇게 일종의 공백으로 남겨져, 산재한 질문을 품은 채 오늘을 맞는다. 그리고 그 오늘은 반복된다. 전시는 이처럼 틈새에 존재하는 움직임들을 내재적인 연속성 속에서 복기하며, 새로움과 시급함, 부흥의 언어가 미처 다 포착하지 못했던 그날의 동력을 다시 확인하려 한다. 그때를 오늘 이곳에 다시 불러내고 또 겹쳐보며 현재의 증상, 공백을 감각하고 또 채워보려 한다.

류인(1956-1999)의 조각은 주로 ‘형상조각’으로 설명되어 왔다. 여기서 ‘형상’은, 추상 또는 구상(사실주의) 등에 대별해 특히 1980 년대 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가리키며 등장한 용어였다.¹ 1980 년대 민전²은 아카데미즘적 구상화 혹은 추상적 모더니즘의 옹호에서 벗어나 신형상 · 신구상, 나아가 비판적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미술로의 전환에 가세했고, 이를 배경으로 국내 미술계에 ‘형상성’ 담론이 자리 잡게 된다. 형상성은 말 그대로 회화 및 조각에서 추상적 화면이 아닌 ‘형상’을 드러낸다는 의미였기에 하이퍼리얼리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고전적인 사실주의 등 다양한 양식으로 발현될 수 있었다.³ 그런 한편, 이른바 ‘민중’ 계열은 비판적 리얼리즘 양식으로서의 형상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점점 더 구체화하게 되었다.⁴ 이와 함께 자리한 ‘추상 대 형상’, 혹은 ‘구상 대 형상’의

¹ 관련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류다움, 「1980 년대 한국 형상조각 연구: 인간 조각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51 (2018).

² 일제 치하 미술 제도였던 ‘조선미술전람회’의 틀을 이어받아 1949 년 이후 유지된 국가 유일의 미술 정책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의 폐단이 곳곳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반발하는 젊은 작가들의 항의가 1960 년(이른바 벽전) 이래 지속된 가운데, 1978 년 민간에서 언론사를 중심으로 조직한 미술 제도를 ‘민전’이라 부른다. 그 성격의 복잡함에 관해선 다음을 참고. 심정원, 「1970 년대와 민전 - ‘민전시대’의 개막과 그 성격」, 『기초조형학연구』 15 (2014).

³ “평단 일각에서는 80 년대에 일어난 이런 현상을 혁신적인 문화운동으로 보려는 조짐도 보인다. 한쪽에선 이들의 작업을 ‘신형상’ 또는 ‘새로운 구상회화’로 부르며 민족미술, 민중미술운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정중헌, 「쟁점 80 년대 미술운동」, □조선일보□, 1984.8.30. 다음에서 재인용: 서유리, 「중앙미술대전과 신형상회화: 한국 미술장의 변동 (1978-1989)」, 『미술사학보』 64 (2025).

⁴ ‘형상’ 어휘의 모호함과 이를 둘러싼 논쟁의 양상은 다음의 연구를 통해 확인. 기혜경, 「서울미술관 전시와 80 년대 형상미술의 전개」, 『미술문화연구』 29 (2024).

개념적 대립은 조각의 한국성 또는 현대성 등을 정의하려는 역사 서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도입된 도식에 가까워졌다. 개별 작품의 조형 양상은 실제로 매우 복합적인 맥락에 놓여 있었음에도 말이다.⁵

전시에 포함된 류인의 작업은 사실적이라고 단정하기엔 과장된, 추상적이라기엔 구체적인 그만의 특징적인 인체 형상을 드러낸다. 전시장 입구에 자리한 초기작 〈자소상〉(1980)⁶부터 내부의 〈입산 I〉(1986), 〈망각의 그늘〉(1993) 등 대략 10 여 년에 걸쳐 제작된 조각들은, 정돈된 사실적 조각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구현하는 신체 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의 궤적을 펼쳐 보인다. 특히 작가는 인간 실존의 고통과 한계를 표현하듯 신체를 왜곡, 과장, 변형하는 한편 입방체, 원기둥, 원형의 고리 등과 같은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지지대를 작업의 일부로서 포함시킨다.⁷ 그렇게 형상조각으로 불리는 작업에는 세부의 사실적 묘사와 물리적 조건/구조들이 대립적인 요소의 충돌 속에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원형의 파이프 위에 인체가 누여(꽃혀) 있고, 물리적 덩어리의 파편 같은 신체는 과도하게 꺾이거나 비틀어지는가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드라마틱한 동세를 만들기도 한다. 류인의 작업에서 ‘몸’ 그리고 ‘형상’은 단순한 재현 대상으로 자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묘사하는 도상적 기호로 환원되지 않으며, 유기적 생체를 넘어 때로는 비유기적이고 기계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렇게 개인의 심리와 정서를 매개하면서 동시에 조각적 형식 자체를 탐구하고 재구축하는 중심축으로 자리한다. 전시는 류인 작업에 나타난 인체가 1980년대 한국 조각의 ‘형상성’ 담론을 단순히 복구하거나 상징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음을, 오히려 조각 내부에서 조형적 사유와 실험을 매개하며 형상성과 추상, 재현과 조형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가능성으로 작동하였음을 상기시킨다.

박영숙(1941-2025)은 페미니즘적 시선을 견지하며 사진 매체를 탐구해왔다. 여기서 페미니즘적 시선이란, 사진에서 빛어지는 ‘찍는 자-찍히는 자-보는 자’의 관계를 위계로부터 해방하고 또 연대하도록 만드는 태도를 가리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기점은 1980년대로 설정되지만,⁸ 박영숙의 사진을 논할 때 이 시간적 범위는, 그 의미와 영향은 좀 더 확장된다. 일례로, 1966년 중앙공보관에서 열린 박영숙의 첫 개인전은 당시 ‘여성’ 사진가의 유일한 개인전 사례로 기록된다. 해당 전시에서 작가는 교양 잡지 『여상』의 기자로 재직하며 촬영한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⁵ 홍지석, 「조각의 근대성과 현대성: 한국근현대조각사 서술의 쟁점들」,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6 (2023).

⁶ 류인의 동료 조각가 오상일은 이 작품이 류인의 최초 작업이라고 회고한다. 오상일, 「내가 기억하는 류인」, 『류인: 파란에서 부활로』 (소마미술관, 2020), 73.

⁷ 류인 조각의 입방체, 추상성의 면모에 관한 해석은 다음을 참고. 최태만, 「류인 작품의 걱정성과 추상충동 재고」, 『인물미술사학』 15 (2019); 김종길, 「류인의 형상조각 연구: 입방체의 현실리얼리티 분석과 형상조각론」, 『인물미술사학』 6 (2010).

⁸ 관련 논의에 관한 개괄은 다음을 참고. 허호정, 「페미니즘, 큐레이팅, 역사 쓰기: 1. 큐레이터의 딜레마」, 『MMCA Research Lab』 주제연구 1 (2023): <https://www.mmcaresearch.kr/essays/view.do?fid=880>.

공개하였다.⁹ 전시에 포함된 흑백 사진 〈장면 13〉은 이 시기 박영숙 작업의 특성을 가능하게 한다. 흑백 대비 속에서 칠이 벗겨진 마네킹의 얼굴은 시대적 균열을 요청하는 듯하다.

이후 작가는 1980-90 년대를 지나며 그만의 조형성과 함께, 연극적이라 할 사진들을 적극 탐구한다. 대표적으로 〈미친년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 신체’, ‘여성성’ 내의 광기를 포착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99 여성미술제: 팔취들의 행진》에서 처음 선보인 이래, 〈갈힌 몸 정치 없는 마음〉(2002), 〈오사카와 도쿄의 페미니스트들〉(2004), 〈꽃이 그녀를 흔들다〉(2005) 등의 시리즈로 확장, 구체화되었다. 위 시리즈를 비롯해 작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만드는’ 사진과 ‘찍는’ 사진의 대립적 구도를 재고했다. 작가는 연출과 포착, 필연과 우연, 조작과 자연, 구조와 개인 등의 개념적 대립쌍을 질문하고 그 경계를 흐리는 작업을 지속하는데, 최근 작업 〈그림자의 눈물〉(2019~)에서는 그간 사진의 중심에 놓였던 인물들 대신 유령처럼 훑날리는 사물과 그 흔적, 장소, 분위기를 담는 데 주력한다. 활화산, 이끼, 냉굴이 무성한 제주의 곳자왈에서 촬영한 〈그림자의 눈물 #12〉는 그간의 사진이 보여 온 기다림과 포착의 감각과는 다른, 그 자체로 대상이 목소리를 내기를 허락하는 확장과 포용의 태도를 환기한다. 전시는 오늘날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페미니즘 미술과 사진의 확장을 재고하며, 박영숙 사진의 대상, 연극적 요소, 그리고 페미니즘적 가치를 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최근의 태도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작가의 실천을 살펴본다.

홍승일(b.1960)은 이른바 ‘80년대 소그룹 운동’¹⁰ 중 하나인 ‘메타박스’¹¹의 일원이었다. ‘메타박스’라는 이름은 넘어섬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목소리 또는 발언을 뜻하는 ‘박스(Vox)’를 결합한 것으로, 당시 화단의 제도권 내 모더니즘 미학을 극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회복하려는 방향성을 담아 지어졌다. 1980년대 중반은 한국 현대미술의 “무의미한 자기복제”¹²를 반성하고, “주변과 호흡하며”¹³, “개념화되고 익명화된 물성을 극복”¹⁴하고자 <타라 TA-RA>, <난지도>, <메타박스>와 같은 소집단이 결성되던 시기였다. 이들 ‘소그룹 운동’은, 대부분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탓에 1990년대 ‘포스트-모던 미술’의 배경 내지는 예비적 증후로 이해되거나, 미완의 매체 실험으로 간주되곤 했다. 전시는 이 움직임을 미술 제도의 균열과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현재적 현장으로 재맥락화한다. 단순히 이후 세대의 등장을 설명하는 징검다리나 일시적 에피소드, 미완의 시도로 축소하지 않고, 내부 관습을 교란하며 새로운 실천적 언어를 실험한 구체적 계기로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한국 미술 속 동시대성의 전개를 보여주는 증언적 장면으로 읽어 본다. 이를 통해 오늘날 누락된, 경계의 실험적 움직임, 제도와 개인, 집단과 매체의 관계를 다시금 사고하고자 한다.

⁹ 박영숙 작가의 작업 세계 전반에 관한 매체 탐구적 접근은 다음을 참고. 이슬비, 「매체 탐구로 구현된 박영숙의 페미니스트 사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6 (2023).

¹⁰ 이은수, 「1980년대 소그룹 난지도와 메타박스의 설치미술: 표현매체로서의 물성, 그리고 현실과 전통」,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6 (2023).

¹¹ 메타박스는 홍승일을 비롯해 홍익대 대학원 서양화와 동기였던 김찬동, 오상길, 안원찬, 하민수가 모여 1985년에 창립한 단체로, 다섯 차례의 단체전 후 1989년 해체했다.

¹² 김장섭, 타라 창립전(1981. 5) 브로슈어, 서문 중.

¹³ 난지도 창립전(1985. 2) 카탈로그 중.

¹⁴ 이일, 메타박스 창립전(1985. 9) 카탈로그, 서문 중.

1980년대 중후반, 홍승일은 ‘사물’의 직접성을 강조하며, 설치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장소특정적이고 다매체적인 작업을 주로 선보였다. 그는 일상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을 마주하며, 도심 곳곳 공사장에서 수집한 오염되고 갈라진 폐합판을 활용해 백색의 전시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 설치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전시작은 그가 1996년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 작가 공모에 선정되어 발표한 《죽은 갯벌과 황폐한 영혼》과 맞닿는다.¹⁵ 긴 시간을 지나 겨우 구조체에 기대어 선, 이 작업은 완성된 형태보다는 오브제의 임시성과 자연 소멸/발생적인 변형을 선택한다. 작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사 중인 도심을, 팽창하는 외연 속 상실된 내용을, 재편되는 동시대 미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실험의 의지를 마치 데자뷰처럼 떠올리게 한다. 동시에, 안착하기보다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과정을 통해 오늘 미술의 불확실성과 가능성을 함께 드러낸다. 전시는 홍승일의 작업과 함께 1980년대 실천의 동시대적 유사성을 확인하며, ‘소그룹 운동의 지속’이라는 가정형 문장을 오늘의 맥락에서 현행화한다.

현재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벗어나려 할 뿐이다. 벗어나야 곧 현재라면, 전시는 그 현재를 여러 시간에 겹쳐보며 상상한다. 전시에 모여든 장면들에는 쉽게 타협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미약한 가능성으로라도 상황을 돌파하려는, 결코 종결되지 않는 그만의 벗어나기가 있다. 단지 ‘젊은’ 공간으로 여겨지며 착각되고 무마되는, 또 영뚱하게 오해되는 이곳 전시장에는 미완의 성취와 함께 좌절과 분노, 방향을 잃은 속도와 허망함, 그리고 불신이 뒤섞여 있다. 미결의 지속과 벗어나 속에서, 전시는 하나의 납작한 사건으로 환원되지 않는, 시간의 결이 흔적처럼 드러나고 교차하는 장면들을 의도한다. 그리고 이탈하는 움직임의 배경을 관찰하며, 오늘의 상실에 이정표가 될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세 작가의 그날이 오늘 필요한 시간은 아닌지 질문하며, 이들을 한 명의 작가로 상정해보기도, 각자의 시간이 오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탐색해보기도 한다. 가히 영화적이라 할 이 망상을 통해, 동의할 수 없는 가치들로 재편되는 동시대 미술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보려 한다. 질주하는 시간을 잠시 멈춰 놓고 다시 플레이하며, 놓친 장면들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건 무엇인지 가능해본다. 비록 그 시도가 매번 어긋나고 마는 나선형의 통로를 지날지라도, 그렇게라도 현재를 다시 묻는다. 결국, 나아지지 않는 현재의 엔터테인먼트에는 늘 우울과 탈주가 함께한다.

권혁규 (책임큐레이터)

¹⁵ 미술회관 작가 공모에 관해선 작가의 말을 참고. 당시 전시의 리뷰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건열, 「작가를 찾아서 - 어둠의 마을 /홍승일」, 『미술세계』 138 (1996년 5월).

[첨부] 2. 참여 작가 및 출품작 소개

류인 (RYU In, 1956-1999.)

1981년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1987년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3년, 1988년, 1990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해부학적 탐구에 기초한 인체 조각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설치 작품을 발표하며 1990년대 구상 조각계를 주도하였다. 1991년 문예진흥원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조각과 설치 미술을 결합한 작품들과 군상을 전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후 1994년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개인전을 열고 1996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선정 우수 창작상 수상 기념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 구상 조각계를 이끄는 젊은 조각가로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병마에 시달리다 1999년 43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류인은 인간과 삶의 본질,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에 대한 성찰을 보여 준 작가이자, 김복진에서 권진규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 구상 조각의 계보를 잇는 조각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류인 작고 15주기 기념전: 불안 그리고 욕망》(아라리오갤러리 천안)과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2020년 소마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 《류인 - 파란에서 부활로》가 열렸다.



류인, 〈그와의 약속 Promise with him〉 (1991)

FRP, 114x28x97(h)cm.

© RYU 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박영숙 (PARK Youngsook, 1941–2025.)

1962년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시작하여, 같은 해 숙명여대 사진동아리에 '속미회'를 구축, 첫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4년 숙명여대 산업대학원 사진 디자인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술계에서 활동하면서 사진 작업으로 페미니즘 작업관을 구축해왔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미친년 프로젝트'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된 여성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대변하며, 미화되기보다 미쳐 버리기를 택하는 이들을 형상화해 온 작업이다. 2007년부터는 10년간 트렁크갤러리를 운영하며 사진가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획자로서 예술계에 사진의 의미와 위치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유지엄한미) 등 한국 주요미술관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가졌다. 박영숙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국가인권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주요 기관에 소장돼 있다.



박영숙, 〈장면 6 Scene 13〉 (1963)

gelatin silver print, 50.5x40.6 cm.

© PARK Youngsook.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홍승일 (HONG Seungil, b.1960~)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80 년대에 그룹 ‘메타박스(Meta-Vox)’ 멤버로 활동하며 ‘탈모던’의 기조 위에서 장소특정적 설치작업을 주로 선보였다. 사물을 왜곡·축소하지 않고 물성(物性) 그 자체를 작업에 도입,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으로 쓰다 버린 합판을 선택해 작업해왔다. 작가는 버려진 합판에서 생, 순환, 상처와 치유 등 근본 감정을 발견하는 한편, ‘설치’의 개념이 태동하던 시기 매체적 실험을 전개해 나갔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평면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1986 년부터 1989 년 그룹 해체시까지 《META-VOX》에 참여했다. 1987 년 관훈미술관의 《회화적 오브제》, 1991 년 《젊은 시각 내일への 제안》(예술의 전당, 서울)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6 년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인전 《죽은 것벌과 황폐한 영혼》 이후 다수의 개인전을 선보였고, 2024 년 《생의 순환 The Cycle of Life》(갤러리아람, 서울)을 열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 강사, 전임교사를 역임했다.



홍승일, 〈생명의 교차 흔적 The Interwoven Traces of Life〉
2025, mixed media, 458×310×246(h)cm,
installation size variable.

[첨부] 3. 전시 포스터 (이미지 파일 별첨)



이미지: 《미드나잇 미드나잇》 전시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A Studio A (이재환)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전경 이미지는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9CUJV9uxCAujP6NfUmPnolreFRGtKDpW?usp=sharing>

- 다운로드 이미지를 별도 용도로 사용시 다음 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제공 뮤지엄헤드, 촬영 조준용

(Image courtesy of Museumhead & the Artists, Photo by CJY Art Studio)

뮤지엄헤드 Museumhead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 층

운영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문 의: museumhead.seoul@gmail.com

Midnight Midnight

12 / 12

MUSEUMHEAD